

Qhf Eo, Tau, August, 2017

1st page:

Oh breath of God, Unite Us in Action:

1.성령께서 우리를 봉사활동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네. (The holy Spirit unites us in action)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외로운 이들과 대화하며, 지구를 돌보는 우리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전국에 있는 형제회들과 서로 나누고 있다.

2. 기쁨으로 섬기기 (Serving with Joy)

St. John the Beloved Apostle Fraternity 회원들은 기쁨으로,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링톤 교구의 Christ House Food Pantry 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3. JPIC 그룹이 프로그램을 찾아 나서다. (Frankfort 소재, St. Elizabeth of Hungary Fraternity, Pat Serotkin, OFS 제공)

44 명의 열성적인 재속 회원은 7 개 JPIC 그룹에 속해 있으며, 현재에도 다음과 같은 계획안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Dr. Tom Cartena 가 수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기부금 모집과 기도.
- 가톨릭 자선기금을 통하여, 미국으로 온 피난민들을 위한 증여 카드 마련.
-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을 위한 후원 편지 보내기.
- Waterleaf 들을 위한 기저귀와 자금 모으기.
- Ronald McDonald House 에게 헌금.
- Kensha county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불법이민자들과의 편지연락.
- 일리노이주, 로빈스 주민들을 위한 위생문제 지원.
- 빈민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기도와 담뇨 보내기.
- 투옥된 프란치스칸 동료들에게 위로 카아드 보내기.
- 특별사목을 위한 성체신심활동 공동참여.
- 적법 및 불법 약물의 적절한 수집과 파기.
- 홈레스들을 돕기위한 물품의 선별과 배송.

형제회 전체 사업으로는 Christian Help in Kermit, WV Franciscan Outreach, 여행자 선교, 자선의 집 후원, 그리고 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여성문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2nd Page:

프란치스칸 주머니 (Franciscan Bags) by Kathy Ramsey OFS

Five Franciscan Martyrs 지구 형제회의 Our Lady Poverty Fraternity 는 사랑의 프란치스칸 주머니를 마련하고 있는데, 주머니에는 프란치스코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주거지가 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에게 줄 음식물, 건강자료, 식기구 등등이 들어 있다. 여기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사진이 있고 뒷면에는 지역사회의 정보가 적혀 있는 포스트 카드도 있다. 각자는 뺄 하나씩을 자기 차로 가지고 가서 가난한 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 드릴 것들을 준비 한다. 각자는 받는 이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사랑과 존경심으로 뺄을 건네 주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고, 받는 이의 이름도 물어보면서, 손도 만져주고, 짧은 대화도 나눈다. 형제회는 또한 각자가 원하는 것을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도 별로 비싸지 않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5.00 짜리 선물 카드(Gift card)도 준비 했다.

나비공원 (Butterfly Garden) by Jean B. Waters, OFS

나는 스스로 자원하여, 지역 공원에 나무나 풀을 심기도 하고, 그 곳에서 잘 자라는 나비공원을 돌보기도 한다. 나는 Florida 주의 , Tampa 에 있는 St. Michael the Archangel 에 속한 회원이다. 이 나비공원은 Tampa 근교에 있는 Hillsborough River 주립공원 안에 있다. 이 공원 안에는 이 지역에서 나는 25 여종의 식물들이 있다. 이 식물의 대부분은 나비를 부르는 과즙을 내며, 특별히, 표범나비, 방아깨비, 그리고 각종 나비들에게 인기가 크다. 그렇지만, 이곳을 찾아오는 벌새 (Hummingbirds)를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오, 하느님의 숨결이여, 이곳을 채워주소서 (Oh Breath of God, come fill this place) by Patrick J. Chalmers, OFS

Florida 주의 , Ocala 소재, Timber Ridge 재활원 및 간호 센터,

그들이, 격월의 스케줄에 따라서, Queen of Peace 재속 프란치스칸 형제회가 성체성사를 주관하고 있다. Queen of Peace 본당의 Patrick Joseph Francis O Doherty 신부님께서 주민들에게 성체성사를 베풀 수 있는 성사직을 정식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형제회에서는 기도와 피아노에

마추어 성가 부르기, 그리고 주일미사 독서(주중미사의 USCCB 스케줄에 따라서)를 감당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 미사에는 30 여명의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며, 따라서, 이들도 우리의 본당인, Universal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Timber Ridge 재활원 및 간호센터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성사는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주민들의 얼굴에서 자주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출현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단결시켜주어,
하느님 사랑의 불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고, 성 삼위일체와 성 교회와의 일치를 이루게 해 준다.

양말과 Suds, by Diane Creedon, OFS

California 주의, Burlingame 소재, Our Lady of Angels 형제회에서는 남부 샌프란시스코 소재, SVDP 회의 Homeless Help Center 를 통하여, Homeless 에게 전달할, 양말 년례수집 장면 사진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형제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전 가족들과 카푸친 프란치스칸 수도자들이 모여 크리스마스 양말에 비누와 샴푸 넣는 일을 함께 했다. 본당에서도 함께 Homeless 들이 샤워하러 오는 곳에 준비된 크리스마스 양말을 가져오자는 의견을 내고 협조했다.

Tau, November, 2017

유대교인이 됨은 무엇을 뜻 하는가? - 그리고 초교파 기구를 이끌고 있는 여성랍비.

(What It Means to Be Jewish – And a Female Jewish Rabbi Who Leads an Interfaith Organization)

나는 세가지 질문을 자주 받는다.

- 1) 유대교인이 됨은 무엇을 뜻 하는가?
- 2) 어떻게 여성 랍비가 되었나?
- 3) 유대교 사상은 당신이 관계하고 있는 초교파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한 사람이 유대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한 특정 종교단체에 속함을 뜻하는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특정문화와 다양한 인종집단들에 속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유대교 속에는 여러 모습과 형태가 눈에 띄이는데, 검정 코트와 챙 넓은 모자를 쓰고 다니며 교리연구와 기도에 전념하며 시간을 보내는 극단적인 정통파가 있는가 하면,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 활동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유대교의 음식규정이나 기타 전통의 혜택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통적인 모양의 유대인은 오늘 날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교인들은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동부 유럽에도, 그리고 남미까지도 널리 퍼져 살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다양한 여러 지역 사람들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하겠가? 간단히 정리하며:

첫째로, 유대교인들은 공통된 역사를 깊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근 삼천년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시대, 모세, 사울 왕, 대윗과 솔로몬, 첫 번째 사원의 파괴와 현대의 이락 지방인 바빌로니아에의 추방, 추방에서 돌아와서는 또 다시 페르시아, 희랍, 그리고 로마 치하에서의 생활, 제 2 의 사원 붕괴와 로마제국 전역으로의 추방 등등을 거쳐 20 세기의 나치시대의 홀러코스트 시련까지를 거치면서, 1948 년에 이르러 기적적으로 이룩한 이스라엘 국가의 설립에 이르는 역사를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은 민족생존의 길을 터득했고 토라의 내용을 익히는데 전력을 기우려 왔다. 이 토라는 유대교 법의 원천이 되었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새로운 생활조건과 난관을 받아드리며 살아갈 수 있던 각 세대의 지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을 탈무드와 법전이나 계시문서에 남겨 놓았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교육과 생명의 가치관,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법, 전 인류를 위한 정의 실현등을 현실화하여 오늘 날의 유대인의 생활습관에 깊숙히 자리잡도록 새겨 놓았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이다.

세 번째로, 유대역사의 초기로부터 이스라엘의 "땅"과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다. 우리는 수 세기 동안 메시아가 돌아오는 날, 우리 모두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세계평화의 중심지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 왔다. 19 세기 말 시오니스트 운동을 시작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이야말로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므로 반유대주의에서 탈피하고, 우리도 타 민족들과 꼭 같은 정상적인 민족임을 온 세상에 일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오늘 날, 유엔이 유대인의 국가를 인정한지 69 년이 지났다. 이스라엘 국가는 우리 민족에게는 분명히 큰 자랑거리며, 어떤 정책에 대하여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많은 토론과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유대교 인들에게는 관심의 초점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함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 그곳에 올라가서 영원한 터전을 잡으라고 말 하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잘하는 짓이라고 서슴없이 말 하련다.

넷째로는,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고유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달력은 음력에 기본을 두고, 양력의 부분을 첨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 달력이 사원시대 이래 경축일 행사를 통하여 가족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단단하게 유지해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전례나, 풍습, 음식, 기도, 그리고 옛부터 내려오는 전설등을 통하여 우리의 귀한 전통을 체험케 했을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상 우리에게는 일년 중에 단 한 달만이 축일이나 단식일이 없다. 그렇지만 이런 달에도 매주마다 휴일이라 할 수 있는 네개의 공휴일(Sabbaths)이 있다.

마지막으로, 박애주의자나 속세에 빠진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공통점은 만물의 창조주이

신 유일한 하느님을 믿는 것으로서,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살피 주시며, 사랑이시며,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느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계명과 인간이 지켜야만 하는 하느님 자신의 도덕률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세계의 평화가 보장될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랍비가 되기 위한 나의 여정의 시작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딸로 태어난 1949 년으로 소급해 올라간다. 룩셈부르크에서 온 우리 어머니는 가짜 가톨릭 영세증명서로 사년간이나 살면서, 남부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레지스탕 회원들이 보호해준 덕으로 살아난 사람이다. 아버지는 1934 년 이스라엘에서 베르린으로 가족과 함께 탈출하였다가, 미국 육군에서 독일군 포로에게서 얻어낸 군사정보의 번역하는 일을 하다가, 누른버그 재판에서 독일문서 번역물 감독관으로 근무한 일이 있었다. 부모들의 경험은 나와 누이에게 깊은 영향을 심어 주었으며, 우리들도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 성공하여, 우리 자신들의 삶과 부모들의 생활에 든든한 뿌리를 내려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확고한 유대교 신앙 안에서 자랐으며, 나는 나이 13 세에 이미 랍비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여자 아이는 받밋스바(Bat-Mitzvah) 축하도 받을 수 없는 때였다. (1960 년대 초에는 유대교의 전례와 민족행사에서 청년기 의무가 주어지는 축하식을 거쳐 남자에게 Bar-Mitzvah 가 주어졌으며, Bat-Mitzvah 는 여자들을 위한 축하행사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대학 마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히브리어에 능통하게 되었고, 그곳 생활에 흠뻑 젖어들게 되었을뿐 아니라, 46년 전에 오늘의 훌륭한 남편도 만나게 되었다. 미국에 돌아와서, 나는 유대와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게 되었고, 동시에 가정문제의 상담역을 맡기도 하였다. 나이 50이 되어서 랍비과정에 응시하게 되었고, 이 모든 벅찬 과정과 함께 딸 셋을 기르는 일에도 게을리 할 수가 없었다.

뉴욕에 있는 유대교 학교에 입학이 허락 되었을 때 나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힘든 일들이 많았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해야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학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학습내용,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들을 깊이 사랑했다. 그들은, 대부분 나처럼, 비슷한 꿈을 가지고 중년 나이에 생애와 직업을 바꾼 사람들이었다.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나는 9 주간의 과정을 택하면서 미쉬칸주에서 병원 사목자로 봉사했다. 2년간은 유대인 학교에서 행정요원으로 일 했으며, 뉴욕주와 미쉬칸주에 있는 여러 유대인 집회의 수련랍비 역할도 겸하여 감당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여러 곡절 끝에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곳은 북미쉬칸주 였지만, 그곳에서 여성 랍비를 받아드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남녀 신도와 마주 처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의 반항의 이유를 이해하고, 내가 그들의 영적 지도자나 선생의 자질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과 성의를 보여줌으로서, "랍비"의 참 뜻을 이해시키려는데 애를 써야 했다. 이곳 이야말로, 또한, 내가 처음으로 초교파 활동을 시작하여, 이 집회가 안정감을 느끼며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하였다. 유대인 기도집회에 크리스찬 그룹을 초대하고, 기도가 끝난 후, 식사를 함께 하면서, 에큐메니칼 활동을 벌리기도 하였다.

디트로이트 중심가에서 갖게된 다음 설교집회에서는, 부근에 산재한 신심단체에게, 지금은 잘 알려

지지 않고 있지만 도시 공동체에 참여하기만 하면, 이 큰 도시의 재건운동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작은 유대인 그룹이 있음을 알리는 일을 시작하였다. 또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루에 두 번씩 기도 안에서 묵상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개념을 "온 민족"을 돌보시는 하느님과 연결 시키기로 생각하였다. 이는 우리의 선조들이신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범으로 남기신 일이기도 하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평등과 정의를 위한 봉사의 중요성은 우리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뿌리 깊게 식여있으며, 에집트에서의 종사리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도록 과월절과 매일의 기도 안에서 우리 뇌에 지금도 새겨가고 있는 바이다. 이렇게 타종교 그룹의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의 숨결과도 같은 일과가 되었다. 침례교도, 천주교도, 감리교도, 유니타리안교도, 무슬렘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통일교도, 하레크리쉬나 교도 등등이 함께 단결하여 초교파적 봉사망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청중과 사회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디트로이트 도시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정과 아이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개선시켜 가는 일에 봉사를 하자는 목적에서 였다.

교육자와 위기극복을 자문하는 전문적인 경험을 통하여 내가 얻고 배운 바로는, 비영리 단체나 신심단체들이 지방정부나 주정부 그리고 사설 경제재단들과 합동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특별히 경제불경기가 지속되는 동안, 필요한 이들에게 필수품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활동이 난민들을 돕는 일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또한 그들의 사업이 여러 경우 겹치는 데가 많이 있음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합쳐, 충분치 못한 곳을 보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도 발견하였다.

당연히, 이 활동을 통하여 나는 다른 이들의 신앙과 사회활동 과정을 많이 배웠고, 날로 나의 정신세계가 계속 넓혀져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디트로이트 초교파 대외활동 네트워크는 아주 활동적인 그룹으로 성장해 갔다. 3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가 관할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 지금도 우리 행사를 돕고 있다. 나 개인에게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성 배드로 클라버 가톨릭 성당에서 있었던 첫 초교파 예배모임은 영적으로 나를 일깨워주는 가장 강렬한 순간이 되어 감사함을 금할 길이 없다. 그때 나는 제단에 앉아 초교파 청중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슬렘교의 소년이 코란의 구절을 목소리를 가다듬어 열심히 노래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순서에서 그들은 하레 크리스나 교도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시는 일이다" - "평화 안에서 함께 하기를, 그리고, 생명의 귀중함에 눈을 뜨고, 하느님의 종으심을 바라보자 "

